Volume 20 Number 05 05 2012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같은 종류인 숫사자와 암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

성경 속의 생물들(13)

사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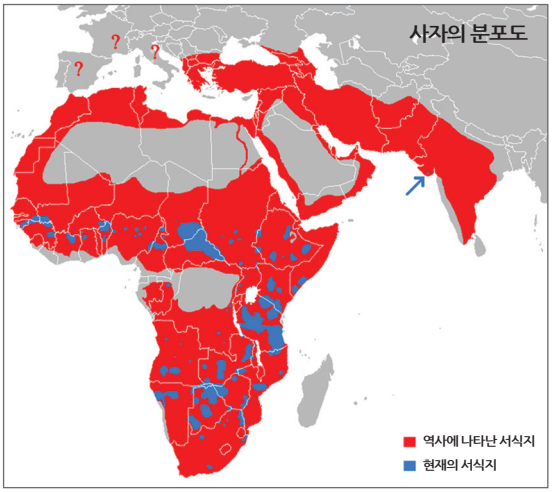
사자와 호랑이를 하나님께서 현재의 모습으로 창조 하셨을까? 왜 사자의 주거지가 점점 축소되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멸종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까? 사자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속적인 관점과 크게 다른 사실들이 있다.

사자를 백수(百獸)의 왕이라고 한다. 백수는 백 가지 짐승 즉 모든 짐승을 말한다. 그런데 숫사자는 평소에 여러 마리의 암사자들이 잡아 오는 사냥감을 아무 노력 없이 먹고 살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백수(白手)건달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백수의 왕은 강함, 사나움, 잔인함, 부르짖음, 담대함, 분노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사자는 고양이 과(family)에 속해 있는 표범 속(genus)의 4가지 종(호랑이, 사자, 재규어, 표범) 중에 하나로 호랑이 다음으로 큰 대형 동물이다. 한 때는 유럽,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및 인도 등 사람 다음으로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서식지가 크게 줄어들어 아프리카의 사하라 남쪽 보호 지역과 인도의 기르 숲 국립공원(Gir Forest National Park) 지역에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생에서는 10~14년 살지만 동물원에서 잘 보호 될 경우 20년 이상까지도 산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가르칠 때 사자와 호랑이를 빼 놓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와 호랑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호랑이의 공통 조상을 창조 하셨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사자와 호랑이, 재규어와 표범 등 수 많은 고양이과 동물들은 모두 다 노아의 방주에서 내렸던 한 쌍의 공통 조상에서 생겨 난 것들이다. 따라서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라이거가 태어 날 수 있다. 늑대와 자칼, 카요티와 수 백 가지의 순종 개들도 마찬가지로 방주에서 나온 한 쌍의 조상에서 생겨 난 것들이다. 세상 과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소진화(micro-evolution)라 부르지만 이것은 단어를 잘 못 선택한 것이다. 소진화란 새로운 유전정보가 소량 생겨 난 변화가 있을 때 붙일 수 있는 단어다. 사자와 호랑이 혹은 늑대나 개 등은 공통 조상에 들어 있던 유전정보의 재조합 결과로 현재의 다양한 동물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므로 소진화가 아니라 변이(variation)라고 해야 맞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육식동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상에서 맹수가 있었다면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그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일 수 없다. 성경은 완벽한 창조 세계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산고의 고통과 노동과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죽음이 들어 왔다고 말한다(창세기 3: 16-19; 로마서 5:12). 따라서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죄가 없는 창조자가 필요했다.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완벽한 출발이 있었고 죄로 인한 타락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 이전 사자의 조상들은 고기가 아니라 푸른 풀을 먹고 살았었다(창세기 1:30).

진화론적으로 10,000년 전에 사자들이 서남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와 전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만약 10,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났다면 지금은 그 때보다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자들이 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왜 사자들은 동물원에 들어오면 자연상태에서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일까? 왜 많은 동물들이 빙하시대 이후 멸종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세상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보지만 제대로 된 대답이 없다(이 결론은 일리노이 주립 박물관 웹 페이지의 설명이다).

노아홍수 직후 상황은 홍수 전에 비해서는 형편 없었지만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았다. 홍수 후 따뜻한 해수 영향으로 그 당시의 세상은 극지역이나 사하라 지역이나 가릴 것 없이 따뜻하고 물이 풍성했으며 온도차이가 아주 적어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창세기 9:1)대로 되었을 수 밖에 없다(이재만–최우성 저, 빙하시대 이야기, 두란노 참고). 이 때 사자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지구상에 가장 널리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이 급변한 빙하시대 이후 점점 악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활 터전이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는 멸종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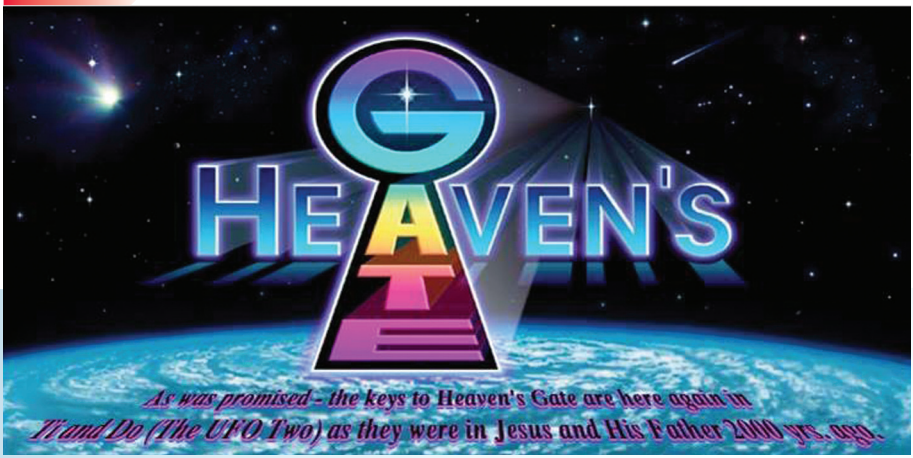
노아홍수가 죄로 인한 심판 사건이었듯이 빙하시대도 홍수 후 약 100여 년 후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에 따른 하나님의 조치로 보인다. 홍수 후기에 빠르게 갈라진 지판들 틈으로 솟아나온 뜨거운 용암(현재 모든 바다 바닥은 용암이 굳은 현무암이다)은 바닷물을 데워 엄청난 양의 물을 증발시켰고, 때마침 터진 대형 화산들의 화산재의 영향으로 낮아진 기온은 증발 된 물이 눈이 되어 수백 미터 두께로 쌓이게 함으로써 빙하시대를 이루었다. 바닷물이 증발되어 드러난 대륙붕들은 서로 연결 되어 온 대륙이 하나가 되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과 방주에서 나와 번성하던 동물들은 손쉽게 다른 대륙 끝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창조물로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아픔도 슬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불만도 없었다. 모든 창조물들간의 관계도 완벽하였다. 이런 세상에 죄가 들어와 창조와 창조 질서를 망가뜨렸을 뿐 아니라 창조자와의 관계가 망가졌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좋았던 지구는 노아홍수로 완전히 사라졌고 홍수 이후 100여 년 만에 또 다시 바벨의 반역 사건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 되었을 뿐 아니라 빙하시대가 오게 해 더욱 나쁜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런 인류의 아프고 슬픈 역사 속에 끼어 있는 백수의 왕 사자도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실은 유전병이나 남획 등으로 고통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로마서 8:19–21).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아비의 심정으로!

최우성 박사
생리학

Heaven's Gate 홈페이지 사진



그것은 섬광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40번 고속도로를 타고 아리조나 주에 들어서서 30마일 정도 지나면 사막 가운데 독특한 건물 하나가 눈에 띈다. 둥근 외벽, 수많은 안테나, 마당에 세워놓은 모형 비행접시들, 설치된 계단 위에 온갖 종교의 상징물… 만난 적도 없는 외계인을 기다리는 UFO 추종자들의 모이던 장소다. 이들은 외계인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믿는다. 인간은 달나라에도 가는 것도 어렵지만, 외계인은 태양계를 훨씬 너머 멀리서 지구까지 왔으니 지구인(!)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UFO의 존재를 믿는 추종자들은 자연히 이 월등한 외계인을 숭배의 대상으로 추앙하게 된다.

1997년 미국 샌디에고 인근에서 UFO 추종자 39명이 집단 자살해서 큰 뉴스가 되었던 적이 있다. 그 집단인 '천국의 문(Heaven's Gate)"의 홈페이지의 커버는 이렇게 장식하고 있다. "이천 년 전 예수와 그의 아버지 안에 있다고 약속됐었던 것처럼 천국 문으로 가는 열쇠가 여기 UFO 안에 또 다시 있다." 이들도 외계인을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굳게 믿고 있던 것이다.

사회학자인 에벌레인(Gerald Eberlein)의 연구 결과는 이를 정확히 반영한다.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특별히 외계인의 존재를 허용한다. 그들에게 UFO 연구는 하나의 대체종교다" (Ufologie, Focus 45:254, 1995). 미래를 불확실해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UFO는 미래에 자신들을 구원할 존재로 여기는 스스로 만든 종교라는 것이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물을 눈으로 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눈은 하나의 창문일 뿐이며,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이 본다. 즉 자신들이 배워왔던 선입견 즉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관이란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창조과학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광활하고 두터운 그랜드캐년의 지층을 보며 쌓이고 쌓였던 오랜 세월이 아니라, 그 지층을 만들었던

엄청난 격변의 현장을 느낀다. 화석을 보고 오래 전의 시대가 아니라, 이를 매몰 시켰던 흙과 물이 그려진다. 계곡과 협곡을 보며 수백만 년의 세월이 아니라 노아홍수 후기 물이 빠지는 과정을 그려본다. 시력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UFO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몇 년 전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출발하려고 버스에 탈 때 50대 후반쯤 되는 참가자 중 한 분이 질문을 던지셨다. 대개 이런 질문은 시작할 때는 잘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독특한 분이다 싶었다. 또한 질문하실 때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어떤 숨은 사연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우주의 기원'을 다룬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을 뒤로 미루었다. 그러자 "강사님께서 UFO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제게 마이크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겠노라고 하고 탐사여행은 출발했다.

UFO 추종자들의 모임 장소

마지막 날 버스에서 UFO 강의를 마치고 약속대로 이분께 마이크를 드렸다. 마이크를 받자 자신이 경험담을 20여분간 이어갔다. 대충 이런 이야기였다.

'언젠가 이분은 친구들과 함께 LA에서 멕시코로 내려가는 길에 산 중턱에서 강렬한 섬광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 섬광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목격했던 친구들이나 이분도 이것을 UFO라고 생각했고, 그 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UFO를 봤다고 말했었다. 섬광을 본 이래로 구역모임에서도 UFO에 대한 언급으로 분위기를 어렵게 하거나 목사님을 곤경에 처하게도 했었다. 결국 그분은 성경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기까지 했다. 교회에서 탐사여행을 떠난다는 광고를 듣고 여기서 무언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다.'

이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다. "제가 본 것은 섬광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그 불빛을 UFO라고 믿었지만 강의를 들은 후에 그것은 외계 물체가 아니라 그냥 섬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 자신이 들어왔던 UFO에 대한 사진과 해석이 그 섬광을 UFO로 보게(!) 만든 것이었다. 탐사여행을 통해서 이분의 시력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바뀐 것이다.

이제 그 동안 UFO라고 하며 실렸던 사진들을 다시 보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사진들은 조작으로 드러났다(첫 칼럼 참조). 그러나 섬광을 찍으며 UFO라고 말하면 확인 없이 'UFO 포착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수 많은 사진들은 사람들에게 UFO에 대한 막연한 존재감을 심어 주어왔던 것이다. 이런 사진을 보고 UFO라고 하는 사람은 UFO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란 지구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일 뿐이며, 머나먼 별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도달하려면 긴 시간이 걸렸어야 할 수백 억년의 우주 진화 역사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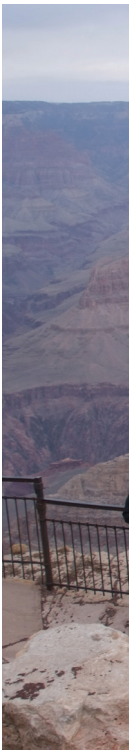
탐사여행

포모나 인랜드 교회

지난 3월 5-7일 포모나 인랜드교회(담임목사 박신철)에서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인랜드교회는 1998년 창조과학선교회 서부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후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중보기도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탐사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많은 기도와 기대로 출발했습니다. 돌아올 때 뜨거운 간증뿐 아니라 오는 6월 21일 빙하시대 탐사여행도 예약을 하였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Mt. St. Helen 1일 탐사여행

지난 3월 17일 시애틀 형제교회(담임목사 권준)에서 Mt. St. Helen으로 1일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한어 중고등부(담당목사 장명갑)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탐사여행 전날 그리고 다음날 세미나를 하며 노아홍수와 빙하시대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미나와 실제 흔적을 볼 수 있어서 효과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는 오는 5월(그랜드캐년)과 7월(빙하시대) 두 번의 탐사여행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리토스장로교회 1일 샌디에고 탐사여행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목사 김한요)는 3월 17일 샌디에고에 있는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 견학을 통하여 창조의 확신과 역사 속에 들어 있는 복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보연준 원로 목사님 부부와 함께 한 이 여행을 계기로 4월 27일 늘푸른대학의 창조과학 강연과, 4월 28일에 또 한 번의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이 계획 되었습니다.

세미나

나성 서남교회(담임목사 김광철, 3월 9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 3월 25일), 베델한인교회(담임목사 손인식, 3월 30일)는 이재만 선교사가, 북

가주 캐년크릭한인교회(담임목사 김궁헌, 3월 10-11일), 아리조나 소망교회(담임목사 김환곤, 3월 23-25일)는 최우성 박사가, 그리고 충현선교교회 (담임목사 민종기; EM 담당목사 Mathew Kim) E.M. 교사수련회(3월 31-4월 1일)는 김선욱 박사가 인도 하였습니다. 초청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제목

계속해서 창조과학 세미나가 교회와 단체들에서 진행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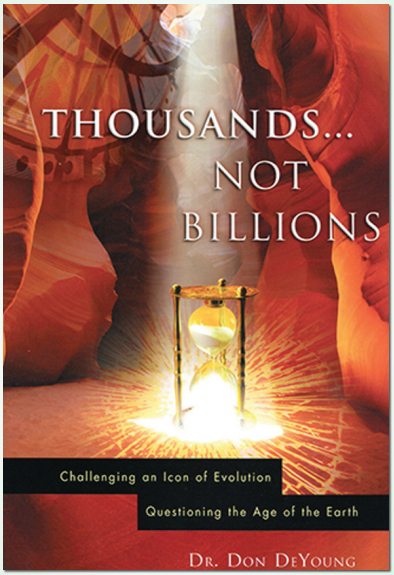
이재만 부회장은 오는 4월 7일 - 5월 7일 한 달간 한국, 대만, 일본 순회 세미나 중에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드러나기를, 그리고 촘촘한 일정에 영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뒤 표지에 예정 된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애틀형제교회 St. Helen 산 탐사

포모나 인랜드교회 탐사여행

수백만 년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1)



창조과학자들의 동위원소 연대측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책 표지

우리가 보는 모든 미디어들은 진화와 함께 "수백만 년"의 생각을 세상에 주입시킨다.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조차 진화론적 철학을 반영한다. "스폰지 밥 사각바지(SpongeBob SquarPants)"라는 만화 중 "기원전 스폰지 밥" 제목이 붙는 곳에서 해설자는 "아아, 원시의 바다를 넘어가라. 수백 만년 전에 생명이 어둠에서 벗어나 어색한 첫발을 디디기 시작해서, 새롭게 형성된 눈알을 열어서 지능의 섬광을 노려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이다."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은 수백만 년이라는 진화 역사의 낚시바늘, 실, 추까지 꿀꺽 삼켜버렸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는 수백만 년이라는 생각이 어디서 등장했으며 왜 교회가 이 생각을 따라가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 그 긴 기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일과정설적 지질학과 진화론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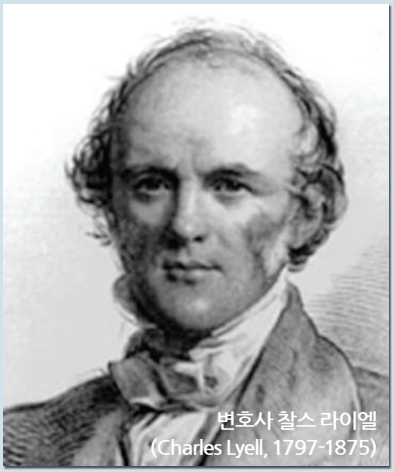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지구와 우주가 수백, 수십억 년 오래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유치원부터 시작 해서 공립학교들은 이 장구한 나이를 가르치며 이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조롱을 받는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며,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질학의 초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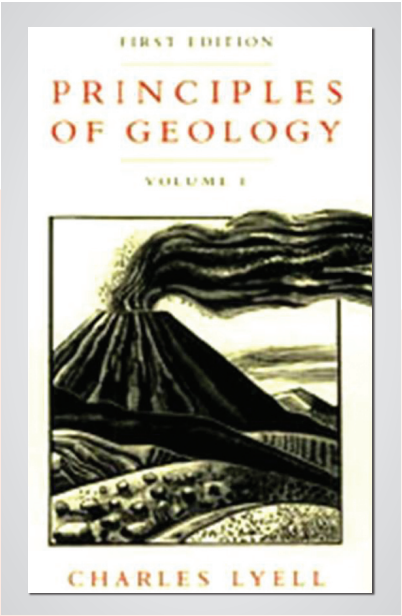
체계적인 야외조사, 암석과 화석의 채집과 분류, 지층과 화석을 형성하는 역사적 사건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여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과학의 한 분야로서의 지질학은 단지 약 2백 년의 역사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 이전인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사람들은 암석 내의 화석 들을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화석은 돌로 변화된 이전에 살았던 생물체의 유해라고 믿고 있었으며, 많은 초기 독교

인들(터툴리언(Tertullian), 크리소스톰 (Chrysostom), 어거스틴을 포함해서)은 화석들을 노아홍수의 결과로 여겼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화석에 대한 그런 생각을 거부하였 으며 자연이 던진 농담, 어떤 경우는 생명이 부여된 암석의 산물,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또는 사탄의 속임수 일 것으로 여겼다. 이 논쟁은 로버트 후크(Robert Hooke, 1635–1703)가 나무화석을 현미경으로 연구하여 화석은 이전 생물체의 광물화된 유해라고 결론은 내렸을 때야 결국 매듭지어 졌다.

스테노(Steno)라 불리는 닐스 스틴센(Niels Steensen, 1638–1686)은 네덜란드의 해부학자이자 지질학자이며, 1750년 이전의 가장 중요한 지질학적 사색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누층군의 원리(the principle of superposition)를 정리하였는데, 이 원리는 퇴적지층이 처음 수평 모양으로 퇴적되었을 때 순서적으로 아래 지층은 그 위에 있는 지층보다 이전에 퇴적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의 책 선조(Forerunner, 1669)에서 그는 지구가 대략적으로 6,000년이 되었으며 화석을 갖고 있는 지층들은 노아홍수에 의해 퇴적되었다는 믿음을 표현했다. 다음 세기가 지나서 영국의 지질학자인 쟌 우드워드(John Woodward, 1665–1722)와 독일의 지질학자 요한 레흐만(Johann Lehmann, 1719–1767)을 포함한 여러 저자들은 이 관점을 더 보충하는 책들을 썼다.


변호사 찰스 라이엘
(Charles Lyell, 1797-1875)

18세기 말에 몇몇 프랑스와 이탈리아 지질학자들은 홍수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거부하고 암석기록들을 오랜 기간을 지나며 발생한 자연 과정의 결과로 돌렸다. 주목 받던 많은 프랑스인들 또한 수백만년의 생각에 기여했다. 널리 존경 받던 과학자인 콤티 데 버폰(Comte de Buffon, 1707–1788)은 그의 책 자연세(世)(Epochs of Nature)에서 지구는 한 때 뜨겁게 녹아 있던 공과 같았으며 약 75,000년이상 식어서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고 상상했다(그렇지만 그의 출판되지 않은 원고는 약 3백만 년이라고 말했다). 천문학자인 피에르 라플라스(Pierre Laplace, 1749–1827)는 그의 "우주 시스템의 설명"(1796)에서 성운가설을 제안했다. 이 이론은 태양계는 한 때 뜨겁고 회전하는 가스구름이었으며 오랜 동안 점차로 식고 압축되어 행성을 형성시켰다는 것이다. 조개 전문가인 장 라마르크(Jean Lamark)는 그의 "동물학의 철학"(1809)에서 긴 연대를 통한 생물학적 진화론을 옹호하였다.



아브라함 워너(Abraham Werner, 1749–1817)는 독일에서 인기 있는 광물학 교수였다. 그는 대부분의 지각은 약 수백 만년 동안 거대한 대양이 천천히 후퇴하면서 화학적 또는 기계적으로 침전된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이 고상하게 보이는 단순한 이론이었지만, 워너는 암석 속의 화석을 설명하는데 실패하였다. 퇴적물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빨리 퇴적되어 돌로 변하는지에 대하여 화석이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이론은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19세기의 많은 가장 유명한 지질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워너의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지구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그의 생각에 영향을 받았다.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허튼(James Hutton, 1726–1797)은 지구역사 에 관한 또 다른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그 후 그는 한 동안 가족농장을 인수받았다. 그러나 그는 곧 그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발견했다: 즉 지구에 관한 연구였다. 1788년에 그는 논문 한편을 발표했으며 1795년에는 책도 한 권 출판했다. 두 가지 모두 "지구에 관한 이론"이었다. 그는 대륙이 천천히 침식되어 바다로 들어갔다고 제안했다. 이 퇴적물들은 지구 내부의 열에 의해 점점 단단해졌으며, 그리고 격변에 의해 솟아올라 새로운 땅덩어리가 되었다. 이 땅덩어리는 나중에 침식되어 대양으로 들어가서 단단해지고 또 솟아올라왔다. 즉 그의 관점에서 지구역사는 순환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암석기록에서 시작에 관한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지구역사를 무한히 길게 만들었다.

격변설과 동일과정설의 논쟁

워너나 허튼 모두 화석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1800년도 초 유명한 프랑스의 비교해부학자이며 척추동물 고생물학자인 조지스 큐비에 (Georges Cuvier, 1768–1832)는 지구역사에 대한 격변론자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그의 "지구 표면의 격변에 대한 논문"(1812)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큐비에는 지구역사의 길고 광대한 나이를 거치는 동안 광역적이거나 거의 전지구적 규모의 많은 격변적 홍수들이 생물들을 퇴적물 내에 파괴시키고 매몰시켰다고 믿었다. 그는 이들 격변적 홍수들 가운데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발생했다고 믿었다.

배수공학자며 측량기사였던 윌리엄 스미스(William Smith, 1769–1839)는 영국

을 돌며 일하는 동안 지층과 화석에 매료되었다. 그는 큐비에처럼 지구역사에 대하여 오랜 지구를 믿는 격변론자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 1815년에서 1817년까지 세 가지 연구를 발표했는데 영국과 웨일 즈(영국의 서남부)의 첫 번째 지질도를 그렸으며 어떤 특징적인(표준) 화석들을 사용하여 암석 층의 순서와 상대적인 연대를 설명하였다. 그는 발견된 화석을 기초하여 암석의 상대적 연대를 부여하는 방법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영국 층서학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격변론에 대한 강한 공격이 1830년에서 1833년 동안 있었는데, 변호사며 버클랜드 학생이었던 찰스 라이엘(Charles Lyell, 1797–1875)이 세 권으로 된 영향력 있는 책 "지질학의 원리들(Principles of Geology)"을 출판하면서부터였다. 허튼의 생각을 부흥 발전 시킨 라이엘의 "원리들"은 허튼이 지질학적 해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원리들을 출발시켰다. 그의 이론은 근본적인 동일과정설 이었는데, 즉 지금 일어나는 강도와 규모의 지질변화 과정만이 과거 지질활동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자면, 지질활동 변화는 전 지구역사 동안 일정했다는 것이다. 라이엘은 어떤 대륙적이거나 전 지구적인 격변적 홍수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지 큐비에
(Georges Cuvier, 1768-1832)

라이엘은 창세기 홍수와 성경적 시간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과다한 칭찬(또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라이엘의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지질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적 가르침을 약화시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격변주의자들의 학설이 노아홍수의 지질학적 중요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지구역사를 전통적인 성경적 관점보다 아주 길게 늘리기는 했지만, 라이엘의 저술은 홍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다.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모든 암석기록을 설명함으로써 그는 노아홍수를 어떤 지질학적 사건도 아닌 것으로 격감시켰다. 격변론이 금방 소멸되지는 않았다. 1830년 말까지 단지 몇몇 격변론자들이 남긴 했지만 그들도 노아홍수가 지질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믿었다.

19세기 끝 무렵이 되었을 때 지구의 나이는 모든 지질학자들에 의해 수억 년 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은 1903년에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20세기를 지나면서 지구나이는 45억년으로 확장되었다.

DR. TERRY MORTEN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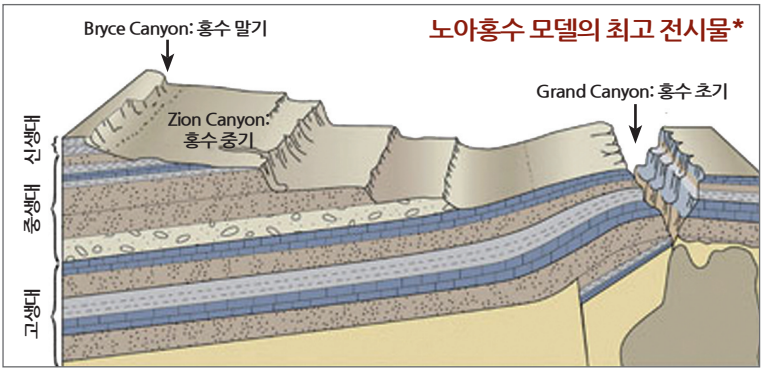
거대한 계단

여러 지층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그랜드 캐년은 창조과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창조과학자들의 그랜드 캐년에 대한 여러 해 동안의 연구와 글들을 통해 그랜드 캐년은 홍수 지질학과 창조론자들의 논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랜드 캐년의 지층들은 동일과정설의 연대에 따르면 5억 5천만 ~ 2억5천 만 년 전 고생대 지층이다. 그러나 창조론자들은 그 연대를 부정한다. 화석과 지질 학적 기록을 고려하면 불과 몇 천 년 전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그 원인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고생대 지층은 홍수 초기에 쌓였고, 중생대(2억5천만 ~ 6천5백만 년 전으로 주장됨) 및 신생대(6천5백만 년 이후부터) 는 각각 홍수 중간 및 후기(혹은 이후)에 형성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 캐년은 중기와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그 때 형성 된 지층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지층들은 아마도 (홍수 후기에 물이 물러 갈 때) 침식되어 없어졌을 것이다.

그 지층들을 크게 보면 그랜드 캐년은 북부 콜로라도에서 남부 아리조나까지 뻗어 있는 아주 커다란 협곡의 맨 마지막 부분이란 것을 알게 된다. 그 캐년은 한 눈에 보기에는 너무 커서 하늘 높이에서 보거나 지도에서만 감상할 수 있다(그림). 그랜드 캐년의 북쪽에는 그랜드 캐년의 지층 위에 Vermillion Cliffs과 사층리로 된 나바호 사암을 포함하는 White Cliffs이가로 놓여 있고, 이 층 위에는 다시 자이언 캐년의 지층들이 있는 Grey Cliffs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아주 매력적인 브라이스 캐년을 형성하고 있는 Brian Head and Wasatch Formations이 차례로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창조론자들은 고생대로 지정 된 그랜드 캐년과 그 지층들은 대홍수의 초기 단계로, 중생대로 지정 된 자이언 캐년과 그 지층들은 홍수의 중간 단계로 본다. 신생대로 지정 된 기간에는 물들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비록 지역적인 규모일지라도 그 모든 지층들이 만들어지려면 강렬한 격변적인 힘들 즉 노아의 대 홍수 날 동안의 에너지가 필요했다!

첨부된 그림은 연속된 지층들의 수직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랜드 캐년은 대륙을 관통하는 Tapeats 사암을 보여주는데 이 층은 홍수 초기 깊음의 샘들이 막 터지는 때 강력한 홍수의 물에 의해 쌓인 것이다. Redwall 석회암은 창조과학자



들이 두 발 길이의 nautiloid 화석 수십억 개를 발견한 곳인데 점진적인 과정으로는 쌓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Coconino의 사암층은 사막의 모래가 계속해서 쌓인 것이 아니라 수중에서 생긴 모래 여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해양 화석과 해양 퇴적물이 들어 있는 자이언 캐년의 나바호 사암도 육지에서 쌓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브라이스 캐년은 홍수의 물이 가득 찬 둑이 무너진 호수 바닥 같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들은 모든 성경을 토대로 한 추론과 잘 맞아 떨어진다. 이 그림에서 보는 거대한 계단은 지질학의 홍수모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시물 이 될 것이다.

John D. Morris, Ph.D. -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소장

* Adapted from Figure 4.12 in Austin, S. 1994. Grand Canyon: Monument to Catastrophe. Santee, CA: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69.

커피 브레이크 탐사여행 간증문 EM

12/26 – 12/28/2011

At this point, I was really starting to doubt God. We were learning evolution at school and I started to question if the Bible was the truth. Then, when I came here I learned the difference between creation and evolution. I'm glad I came. If I didn't come, I think I would have been more doubtful and would have estranged. Thank you. - *Ashley Kim*

I am now very fascinated by the fact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of the creation. How God guided Noah to made the ark and the ground flood happened, leaving its works for everyone to see. The Grand Canyon was amazing. I was amazed by its layer of differences segments of lives. But behind its bearing there was God's judgment to mankind. It made me to think about myself. - *Grace Kim*

I'm so happy I came because I met new people, learned even more from what I already knew, and felt closer to God. - *Alex Kim*

I chose to believe the creation theory. One more thing I learned from this trip is about how people lived to be so old long time ago. Overall this trip was fun and I got closer to God. - *Unknown*

I also realized that the facts that we learn in school are actually fiction according to the Bible. Everything that is written in the Bible is real and it has happened all over the world. There is also actual evidence that it occurred, unlike the studies of evolution we learn at school. I was able to get closer to God and how he worked in my life. - *Soo Lee*

I always thought you believe in science or religion for the longest time. Now I understand they work together. Science shows us how things were made and religion shows us why it was made. It was very educational and amazing to know both sides. -*김혜수*

Sometimes I totally forget about God, because I'm so caught up with other things. However, this trip has opened my eyes to show me God's power through depictions of the flood. Thank you for this touching experience. - *Caleb Choe*

I learned that creation isn't taught in schools, which is the truth and how every difference of creation & evolution theory matters so much. How wonderful God's creation is. This tour helped me understand a lot. Thank you. - *Grace Yang*

Through this trip, everything that I learned at school is proved wrong. The creation theory makes more sense than the evolution theory. I now have a stronger belief of God. - *John Oh*

During this trip I have learned that evolution was proved wrong and that creation had made more sense in a lot more ways. I also learned that dinosaurs and humans lived together. This trip has helped me become even a stronger Christian and that God created us separately and animals separately. - *Daniel Lee*

Evolution is taught wrong. Creation is what makes things beautiful. Just like the first world that God had created, but sin entered in that world. But if you believe that Jesus is the savior & he's the only way, then there will be hope. - *Connie Ahn*

Evolution might make some senses initially but as we dig deeper & study, it has more holes in the theories & creation theory makes more sense at the end. - *Victor Choe*

Everything I believed about dinosaurs has been proved wrong. I enjoyed the mini lectures and of course looking at God's judgment on the earth Grand Canyon. This was a really cool trip and the earth is really younger than secular scientists say. - *NaYeon Esther Kim*

Thanks to the evidence I've witnessed here though this program, I was convinced of God's existence, and I am now completely a creationist. - *Ian Lee*

Now I realize that everything that happened in the Bible really occurred in real life. - *Todd Park*

I learned that Grand Canyon is formed by Noah's flood and it is the evidence that God is our creator. And I realize that evolution theory doesn't make sense. So I decided to believe creation theory and read bible more than I read before come here. - *Soo Ah Lee*

This trip helped me be a stronger Christian. The Grand Canyon is formed by Noah's flood. This is evidence about God. I notice that the evolution theory doesn't make sense. The creation makes more sense. I also learned that dinosaurs lived with humans. - *Brian Lee*

This trip I was just think about Grand Canyon but it wasn't. I learn about Noah's flood more and difference about creation and evolution. I believe God's creation. This trip was helped lots. -*이수산*

I thought the lectures and seminars were very informative and I learned a lot through this science camp. - *Hannah Choe*

사역일정 *SCHEDULE*

2012년 ACT Schedule

5/1-2	오사카 야오교회 (이재만, 일본)
5/3	미토 제일침례교회 (이재만, 일본)
5/4	아오모리 침례교회 (이재만, 일본)
5/5	제일 대한 나가노교회 (이재만, 일본)
5/6	야찌오 온누리교회 (이재만, 일본)
5/6	LA 온누리교회 (최우성), LA, CA
5/10-17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5/20	파사데나 드림교회 (이재만)
5/22-25	창조과학 탐사여행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이사회수련회)
5/26	순회선교단 (이재만)
5/26-28	메이페어 구세군교회 (773-794-6240 일반트랙: 이동용, Youth Track: 김선욱), Chicago, IL
5/26-28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5/27	얼바인온누리교회 창조주하나님 (이재만)
5/28-31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5/31	Coffee Break (이재만), CA
6/2	샌디에고 탐사여행 영락교회, (최우성)
6/4-6	미동남부 연합수련회 (이재만, 980-258-3521)
6/10	LA 온누리교회 (이재만), LA, CA
6/11-13	창조과학 탐사여행 (파사데나드림교회)
6/18-20	3차 신학생 탐사여행 (213-381-1390)
6/21-23	빙하시대 탐사여행 (포모나 인랜드교회)
6/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충현선교교회 E.M.)김선욱
6/25-28	빙하시대 탐사여행 (CGN-TV, 213-381-1390)
6/28-30	Answers in Genesis Ark encounter president's retreat(이재만, 최우성)
7/2-5	창조과학 탐사여행 (감사한인교회 213-381-1390)
7/6-8	창조과학컨퍼런스(시카고 휄로우쉽교회)
7/13-15	빙하시대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213-381-1390)
7/14-15	토랜스 은혜로교회 (최우성), C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